

[속보] 막가는 이명박정부...국민격앙 '거리로'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5.29 18:14

[4신/5월30일/03:15] 시민들 '고시철회 협상무효' 외치며 광화문 왕복 8차선 점거 연좌농성 벌여, 경찰 새벽진압 시민들 청계광장에서 밤샘농성 돌입, 민주노총 30일 전국 14곳 냉동창고 앞에서 규탄대회

오후 8시30분경 서울 시청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친 6만여 대오는 1시간 30분여 대행진 끝에 광화문 교보문고앞 종로통에 집결했다. 이날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범국민적 저항이 격화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0여 곳에서 일제히 이명박규탄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네티즌 시민 6만여 명 시청->을지로->광화문 촛불대행진 벌여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 퇴진 등 외치며 장관고시 강행 규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왕복8차선 도로에 집결한 네티즌, 학생, 시민 등은 그곳에 연좌해 대오정비를 하던도중 일부 시민들이 왜 연좌하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행렬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부터 종각 보신각을 넘어까지 이어졌다.

저녁 10시 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경찰차에 막혀 항의하던 대오는 뒤로 돌아 종로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경복궁 쪽으로 진출하려다 다시 경찰 저지선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평화시위 보장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고시철회, 협상무효”, “우리들은 정당하다”,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등 구호를 외치던 시민과 네티즌들은 경찰에 대해 “비켜라”, “불법주차 견인하라”, “냄새난다 시동꺼라”며 봉쇄조치를 규탄했다.

행진대오는 반대쪽으로 돌아 창덕궁 앞 사거리에서 우회해 종로통을 거쳐 다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도착했다. 행진 도중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시위대를 응원 격려했다. 대오는 “민주시민 함께해요”라고 외치며 응답했다. 행진대오가 지나갈 때 한 시민은 대오를 향해 머리 위로 손을 높이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외쳐 항의행진을 벌이던 네티즌과 시민들 환호를 받기도 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다시 집결한 대오는 참가자 자유발언과 구호, ‘아침이슬’ 노래 등을 부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 공동 요구를 재확인했다.

서울대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우리가 왜 이렇게 경찰을 피해다녀야만 하느냐?”며 “우리 요구는 정당하므로 피해다닐 필요가 없고 오늘 국민들을 다 죽이려는 이명박을 한 번 보려고 나왔다”고 정부 고시를 규탄하고 “이명박은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한 참가자는 “저는 중2,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경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슴이 뜨겁다”고 촛불행진 참가 소감을 밝히고 “예로부터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백성이며 민초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생명을 불모로 있을 수 없는 쇠고기협상을 벌이고 초국적 자본과 재벌을 통해 국내 공기업을 다 팔아넘겨 공공부문을 모두 사유화함으로써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그 돈으로 대운하를 시작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정부”라고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대 인문학부 08학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도 “오늘 촛불집회에 온다고 하니까 매점 아줌마가 ‘왜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런 일에 관여하느냐?’며 ‘너희가 나가든 안나가든 변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저도 리포트도 써야 하고 많이 바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사회변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해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환호를 받았다.

경찰 새벽 폭력진압, 부상자 다수발생

새벽 1시30분경, 광화문 교보문고 앞쪽으로 집결해 연좌농성을 벌이는 시민대오를 향해 중무장한 경찰병력(이하 경력)이 진입했다. 차도와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일제히 '비폭력'을 외치며 경찰진압에 맞서 항의한다. 광화문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동아일보쪽 입구를 틀어막은 경력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교보문고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경력들이 합세했다. 광화문 통은 전경병력으로 뒤덮혔다.

새벽 1시55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2천여 대오를 인도와 청계광장쪽으로 밀어 붙이려는 듯 경력은 인도와 차도 구별없이 진입했다. 학생 시민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돌과정에서 일부 경력이 폭력을 행사했다.

인터넷 상에서 활동 중인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이 현장 대기하면서 상황을 살폈으며 군예비역 수십여 명이 군복을 입고 나와 시민대오 선두에서 경찰병력과 시민들 사이의 물리적 마찰을 방지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은 주미대산관 쪽에서 경력에 막히자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왜 인도까지 올라와 충돌을 빚어지게 만드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우리는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힌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외국에서도 한국시민들의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투쟁 관련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현지에서 지지 촛불집회를 갖겠다는 소식이 현장에 들린다.

시민들 늦새벽까지 경찰진압에 항의하며 촛불 이어가겠다 결의

새벽 2시 현재 광화문 교보문고 앞쪽은 혼정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동트기 전에 차로를 개통하겠다고 병력을 투입했고, 시민대오는 한치 양보없이 "고시철회 협상무효, 비폭력,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응전했고, 인도에 늘어난 인도 시민들은 "현장 지휘관 나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새벽 2시를 넘기면서 광화문 전차선에서 혼전을 벌이던 중 경찰병력이 일부 시민을 폭력연행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협상무효 장관고시 철회'라는 글귀를 적은 플래카드를 시민들이 들고 차도로 뛰어나오자 그 즉시 경력이 출동해 강제진압을 벌인 것. 다시 격분한 시민들이 차도로 뛰어들어 경력에 맞서는 등 기세를 이어간다.

경찰 강제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물러나지 않는다. 부상자 여부는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력이 인도까지 침탈했다. 경력은 비각 쪽에 서있던 시민들을 교보문고 쪽으로 밀어냈고, 이들은 세종로네거리 출구 쪽과 주미대산관으로 통하는 교보문고 사이길, 그리고 보신각 쪽으로 이어진 네거리 쪽 등을 모두 봉쇄했다.

경력은 4겹으로 포위망을 좁히는 동시에 차도에 있던 시민들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선두에 섰던 군복입은 예비역 시민들 중 2명이 경찰 폭력으로 팔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되기도 했다. 경력과 대치 중이던 시민들이 인도변 쇠스텐드를 등지고 있다가 밀리면서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이 잇따랐다.

네티즌, 시민들 청계광장 밤샘농성 돌입

결국 광화문우체국 앞 인도로 밀린 시민들은 새벽 3시10분 현재 경찰과 대치한 채 '폭력경찰 물러나라, 협상무효 고시철회'를 연호하며 항의 중이고, 일부는 청계광장으로 들어와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촛불대행진 행렬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당도할 무렵 경찰은 이미 차벽을 세워 더 이상의 행진을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이 한때 대오를 다시 돌려 행진해야 한다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국민대책회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네티즌과 시민들 분노를 어떻게 모아내느냐가 관건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국민 분노가 폭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14곳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물량을 야적한 냉동창고 앞에서 일제히 규탄집회를 연다.

[3신/20:30] '고시무효 정권심판' 외치며 촛불대행진 돌입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다"

저녁 8시30분 현재 약 4만여 명의 인파가 집결했다. 평화 촛불대행진에 돌입했다. (이후 소식 전합니다.)

[2신/19:50] '오늘은 이명박정권 파탄의 날' 서울시청광장 수만인파 집결
"촛불문화제 행사 즐기고 곧바로 촛불대행진 벌이겠다"

본행사가 시작된지 10여 분만에 서울 시청광장은 인파가 급속히 불어나 비좁을 정도다. 참가자들은 '고시철회 국민심판'을 외치고 '이제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버릴 차례'라며 소리치고 있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우리가 언제 폭력을 쓴 적이 있었나"며 "정부는 무조건 불법시위, 폭력시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장관고시 강행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나타났다"고 격앙하고 "이명박 정부가 민주원칙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 촛불행진이 시작되자 거세진 경찰의 폭력진압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진 도중 경찰 폭력이 발생할 경우 꼭 해당 경찰 이름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경찰의 부당불법한 폭력진압 태도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히 "법을 지켜라"려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생 오미경 씨는 "현재 학교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대학 동맹휴교를 위한 총투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학교당국 측이 이를 불법이라며 강압하고 있다"고 폭로해 참가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오늘 고시강행의 날을 바로 이명박 정권 파탄의 날로 만들자"며 강고한 투쟁을 호소했다.

저녁 7시50분 현재 서울 시청광장은 이날 장관고시에 분개한 네티즌 시민들로 가득차고 약 3만여 명이 정도가 집결한 상태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김재울 정책부장이 무대 발언을 잇고 있다. 그가 '투쟁'을 외치자 참가자들도 일제히 '투쟁'을 따라 외친다. 그는 노동현장 단체급식에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 중단 선언과 함께 수입업자 등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대출 중단, 이들에 대한 신용장 발급 중단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민주노총 금융노동자들의 투쟁 방침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은 환호를 지르며 투쟁을 외친다.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 운송거부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큰 소리로 격려하자는 사회자 말에 참가자들은 다시 일제히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저녁 7시50분 현재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2]

[1신/5월29일/18:00/서울시청광장] 주부들 유모차 끌고나와 거리행진중
네티즌모임 회원들 장관고시에 격앙, 서울 총집결 호소
각 대학들 동맹휴업 포함한 장관고시 철회 반광우병, 반이명박투쟁 격화
민주노총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개최 대정부투쟁 방안 모색

이명박 정부가 29일 오후 4시 끝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항의시위에 돌입한 네티즌을 비롯한 광우병쇠고기 범국민대책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3당, 각 대학들, 민주노총 등이 장관고시에 대해 대국민과의 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모임들은 이날 주부들을 중심으로 유모차 항의시위에 들어가 오후 5시55분 현재 서울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거리행진 중이다.

[사진1]

각 대학들도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동맹휴학을 비롯한 직접 행동에 나섰고 1천5백여 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도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반대운동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용인 소재 미국산 쇠고기를 야적한 강동냉동창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긴급 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향 등을 집중논의한다.

[사진3]

오후 6시 현재 서울 시청 주변 일대에는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포진해있다. 특히 서울시청광장으로 진입하는 1호선 5번 출구를 중심으로 플라자호텔 정문 앞 등지에 병력을 배치했다. 방송국을 비롯한 취재진들도 시청광장 한모퉁이에 현장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취재에 나섰다.

이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수십여 명의 주부와 네티즌모임 회원들은 취재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세력들이 퍼트린 '프락치론'에 말려 논쟁이 격화됐던 상황에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했던 일부 네티즌들이 옆사람을 불신하는 눈치다. 그러나 이같은 불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불신과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9일 장관고시가 강행됨에 따라 행안안전부 관보고시는 6월 2일경 다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투본회의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투쟁상황 등을 종합해 현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